

김정일 정확한 병세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 상실에 대한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등 인접국의 정부기관 평가와 언론 보도가 건강이상의 원인부터 경과, 현재 병세에 이르기까지 여러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국가정보원과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김 위원장이 지난달 14일 특정을 자제하는 가운데 폭스뉴스 등 일부 언론매체가 고위 당국자, 정보기관 관계자 등의 말을 인용, "알려진 것보다 심각하다"고 보도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김 위원장이 "지난달 14일 이후 순환계 계통에 이상이 생겨 수술을 받는 등 집중치료를 받아 현재는 상태가 많이 호전됐다"는 내용이 10일 알려졌다.

병명은 '뇌졸중, 뇌출혈, 뇌출혈 등'으로 보이거나 하나로 특정하기는 어려운 상태"로, 현재 병세는 "수술 이후 언어는 장애가 없으며 움직일 수 있는" 상태라거나 "부족하면 일어설 정도"라는 보고가 이뤄졌다.

특히 12일에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양치질을 할 정도의 건강 상태로 파악하고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급박한 상황은 지난 것으로 인식했으나 미국의 폭스뉴스는 '양치질' 보도가 이뤄

韓 "회복중"…美 "생각보다 심각" 日 언론, 자국 정부기관 인용 안해 中, 당국 언급 없이 언론보도 통제

일본의 경우 당국자들은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가운데 언론은 최근 중국의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의 건강이 상실을 보도하고 있으나 자국 정부기관 당국자들은 인용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우방인 중국은 당국의 언급 없이 김 위원장의 건강에 대한 보도를 아예 내놓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이 '스트로크(stroke)'로 심각한 건강문제를 일으켰다는 구체적인 보도는 지난 9일(미국 시각) 폭스뉴스를 통해 처음 보도됐다.

보수 성향의 폭스뉴스는 "서방관료들"의 말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지난달 14일 스트로크로 집무를 할 수 없게 됐거나 휠체어 신세를 지고 있음을 암시하는 정보가 있다" 보도했다.

진 직후 미 정부 고위 관계자의 "김 위원장이 곧 사망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빠르게 회복 중'이라는 한국 언론의 보도는 믿지 않는다"는 말을 전하기도 했다.

일본의 경우 10일 요미우리가 미국 언론을 인용, "김 위원장이 뇌졸중을 일으켰을 가능성"을 보도했고, 니혼게이지는 일본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것은 아니다"는 전제 하에 "건강불안설을 둘러싼 여러가지 정보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장위 외교부 대변인이 11일 "북한측으로부터 김 위원장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말한 것 외에는 정부기관의 공식 언급이 없으며, 언론매체들도 외신을 꼼꼼하게 전하는 선에서 보도를 그치고 있다.

“김정일, 수개월전 일상업무 당·군에 위임”

WT “김정일 사망해도 급격한 체제 불안정 없을 것”

북한 군부와 노동당의 고위 간부들이와 병중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대리해 북한을 통치하고 있다고 워싱턴 타임스가 미국 행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15일 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달 뇌졸중으로 쓰러지기 전까지 수 개월간 건강문제로 시달리면서 일상적인 업무를 부하들에게 맡겨왔고, 따라서 당장 북한 체제에 불안정을 초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미 정보소식은 "김정일의 확실한 후계자가 없기 때문에 북한 엘리트 사이에 권력암투가 있을 수 있지만 노동당 간부들이 김정일의 정책을 답습하고 있는 만큼 북한 내부의 불안정은 가까운 시일내에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의병을 요구한 미국 관리들은 "심지어 김정일이 사망한다고 해도 그를 떠받들고 있는 지지기반이 있다"고 밝혀 북한내부의 급격한 불안정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고

신문은 밝혔다.

또한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만일 김정일이 사망한다면 집단지도체제가 일시적으로 김정일 체제를 대신하겠지만, 궁극적으로 한 명이 권좌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리들은 "역사적으로 볼 때 남한과 북한에서 집단지도체제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면서 "누군가가 최고자리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이언 맥도널드 유럽연합 대사, 필립 티에보 주한 프랑스 대사 등 참석자들이 1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한-EU FTA 통상정책 대토론회에서 국민의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EU FTA 통상정책 대토론회

盧 “민주, 뚜렷한 대선주자 없어 걱정”

민주당 최철국 의원 밝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눈에 띄는 차기 대선주자군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남 김해 출신 민주당 최철국 의원은 16일 YTN 라디오 '강성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추석 인사차 봉하마을을 방문한 자리에서) 노 전 대통령은 뚜렷이 부각되는 대선주자가 빨리 나타나야 될텐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 걱정을 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정치 재개설에 대해 "정당인으로서 정치를 할 계획은 결단코 없다고 전부터 누차 강조해왔다"며 "대신 시민으로서 정치에 참여하는 활동은 계속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는 "예를 들어 인터넷 광장을 통해서나, 또는 강연이나 특강 등 시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시민의 정치 수준을 높이는 그런 활동을 할 것으로 본다"며 "현재 대통령 기록簿(유출) 논란 등 주변의 여러 사안이 해결된 후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종부세 대상자 30% 주택 3채 이상 보유”

개인주택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10가구 중 3가구는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세청이 이광재 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대상 37만9천가구 중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가구는 11만가구로 31.8%에 달했다.

이 중 5채 이상을 보유한 가구는 6만100가구(16.1%)였고 3채를 가진 가구는 4만가구(10.5%)였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종부세 대상은 23만2천가구로 전체 61.3%를 차지해 절반이 넘었다. 종부세 대상 중 주택 1채를 보유한 가구는 14만700가구(38.7%)로 3분의 1이 조금 넘었다.

종부세 대상을 공식 가격대별로 살펴보면 6억~9억원 사이가 22만3천가구로 전체의 58.8%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신고 대상 가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 23만900가구(63.2%)가 종부세 납부 대상이었다. 지방의 경우 ▲광주 1천가구 ▲전남 900가구 ▲제주 700가구 ▲울산 700가구 등으로 종부세 대상자는 극히 드물었다.

김정일 와병설 불구 남북교류 '이상 무'

“민간단체 초청장 발급 지장 없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와병설로 인해 남북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남북 교류협력사업에 별다른 이상 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16일 통일부에 따르면 김정일 위원장이 9·9절 행사를 드려내지 않아 와병설이 증폭된 지 일주일만 지난지만 남북 지원 민간단체 등 민간 방북은 종전과 같

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주 예정된 소규모의 민간단체 방북은 모두 19건이며, 18~21일에는 평화 3000이 100여명의 대규모 방북을 계획하고 있다.

이달 22~23일 대규모 방북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관계자는 "북측으로부터 초청장 발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받았다"며 "내일 초정장이 오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무안 - 광주(통산, 구화산) 무안공항 직항 전세기
무안 - 정사(창가게, 환가게) 무안공항 직항 전세기

● 공항 주차장 무료이용
 ● 개인 차에의 만족도를 주는 **광주 MBC 문화여행 상품입니다(www.kjnet.co.kr)**
"기존의 예가지 상품과 차이가 다릅니다"

무안-광주 직항 전세기	무안-정사 직항 전세기
<p>무안-광주 직항 전세기 (4월 4일 ~ 4월 5일) ₩ 283,000 / 4월 5일 ₩ 198,000</p> <p>● 무안-광주 직항 전세기 (4월 4일 ~ 4월 5일) ₩ 283,000 / 4월 5일 ₩ 198,000</p> <p>● 무안-정사 직항 전세기 (4월 4일 ~ 4월 5일) ₩ 283,000 / 4월 5일 ₩ 198,000</p>	<p>무안-정사 직항 전세기 (4월 4일 ~ 4월 5일) ₩ 620,000 / 4월 5일 ₩ 588,000</p> <p>● 무안-정사 직항 전세기 (4월 4일 ~ 4월 5일) ₩ 620,000 / 4월 5일 ₩ 588,000</p> <p>● 무안-정사 직항 전세기 (4월 4일 ~ 4월 5일) ₩ 620,000 / 4월 5일 ₩ 588,000</p>

광주 MBC 문화여행 | **광주/전남 북 유망여행사** ☎ 문의 062-226-8070